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시상중계 ⑤

주제 : 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중생 다 구제하겠다’ 큰 마음 품어야



**현산 스님**  
(회암사 선등선원장)

하늘의 해가 떠올랐다 지고, 또 계속 떴다지고 하면서 세월이 손살갑이 지나가 사 람은 금방 죽을 문에 당도합니다. 세월이 무상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이란 것도 역시 고달파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법 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석자(石字)도 못 되는 땅에 내 몸이 묻힐 것을, 요즘에는 남 팔당이라고 해서 화장해 버리면 금방 한 줌 재로 변해 버립니다. 금생에는 이 몸뚱이가 나(我)라고 생각했지만 한 줌 재가 되어버 릴 것 같으면 과연 어떤 것이 나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이 몸뚱이를 ‘나’라 하고, 보이고 들리는 것, 냄새 맛 느낌 생각이 조건 지어지는 것들을 ‘마음’이라 잘못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은 말씀하시길, “이것이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하고, 혀에 있으면 맛을 알고 몸에 있으면 촉감을 느끼고, 손에 있으면 물건을 잡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고 하는 이는 이것을 ‘불성’이라 하지만 모르는 이는 ‘영혼’이라 부릅니다. 영혼과 불성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둘 다 알맹이가 없는 지라 모습 아 닌 모습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바를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처자권속이 많더라도 하 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울 적에도 혼자 왔지만 갈 적에도 이렇게 혼자 만 가는 것이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삶이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바른 삶이라는 것은 가 장 가볍게 있는 나를 바로 깨닫는 것, 그것 이 바로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나를 모 를 것 같으면 바르게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은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중 여 러분은 오직 이 순간에 가장 가볍게 있는 내 면목을 깨닫는, 그런 법문을 듣기 위해 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을 선(禪)이 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을 요즘 사람들 은 너무 많이 알니다. 컴퓨터라, 인터넷이 다 해서 들어가 보면 갖가지 법문이 다 실 려 있어요. 아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 몸뚱이를 나로 잘못 인식

오조년래적학문(吾早年來積學問)하야 역증토소심경론(亦曾討疏尋經論)이로다. 분별명상(分別名相)을 부지후(不知)하니 입해산사도자근(入海算沙徒自困)이로 다.

이것은 영가현각(永嘉玄覺, 675-713) 스 님의 <중도가(證道歌)>에 나오는 계승인니 다. 영가 스님은 일찍부터 학문을 쌓아 공 부를 많이 했고, 출가해서는 경론(經論)과 주소(註疏)에도 밝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인생 문제, 즉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명(名)과 상(相)을 분별하고 매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봤 자 바다 속에 들어가 모래알을 세는 것과 같아서 그칠 날이 없구나. 아무 실질적 도 움이 안 된다. 많이 듣고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난 스님이 부처님 시봉을 40여 년을 했 는데 부처님이 꾸짖기를 “내가 천 날 만 날 배우는 것이 한 날 참선하는 것만 같지 못 하다. 팔만 사천 대장경을 다 외우다시피



현산 스님은 조계사를 가득 메운 3천여 불자들에게 “절대 많이 안다고 본래면목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며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깨닫는데 몰두하면 모든것 이룰수 있어

해도 결국엔 생사 문제를, 내가 나를 깨닫 지 못한다. 금생에 비록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무슨 소 용이 있오라.” 그렇게 부처님이 아닌 스님 을 꾸짖으신 바가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내 삶에 참 행복을 가 저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 님 열반 후에 가십 존자가 부처님 대를 이 었는데, 고심하던 아난 스님이 가십 존자에 게 가서는 “사행님이시여, 금란가사 외에 어떠한 법을 부처님께 전해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난아.” “예”하고 대답 하니가 가십 존자가 하는 말이 “절 문 밖의 갈간(伽藍)대를 켜어버려라. 네 묻는 것이 분명하고 대답한 것이 진실하니 바로 이 법 을 전수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여? 잘 간대를 켜어버리라는 소리, 무슨 답한 것이 분명한 그 자리, 그 정도는 여러분이 법문을 하도 많이 들었으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래서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 첫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부처님 법을 이은 유명한 거사님이 인도에는 유마거사가 있고 중국에는 방거 사라는 분이 있는데 방거사께서 말씀하시 기를, “오직 있는 것을 비움지언정 비운 것 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수많은 생각이 없 고 싶게 한 환(幻)에, 환(幻)이라고 하는 것 은 손가락을 탁- 핑기는 순간을 말하는 것

### 분별 놓을때 번뇌 사라져

우리 중생들은 한 참나에 생각이 900만이 나 일어났다 죽었다 한다 그래요. 그러한 중생념을 다 지우고 비워야 되는데, 그걸 다 비울 것 같으면 본래 물질이라는 것이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어서, 물질과 마음 이 없을 때 온전한 참 법계가 드러나고 내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남악회양(南嶽懷讓, 677-744) 스님께서 육조혜능 스님(六祖慧能, 638-713)을 찾아 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법을 배

우려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가 육조 스 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슨 물건이 이 려게 왔느냐” 하고 다시 물으니가 딱 마혀, 그 딱 마쳤을 때 알 수 없는 그것이 이 몸을 끌고 다니며 법을 배우러 왔다는, 그 자리 를 그렇게 공부하기를 8년을 했습니다. 이 게 바로 선이요, 그 ‘이윽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나,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8년 만에 확절대오해서 “설사 한 들 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 을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아는 것 다 지워 버려야지,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하고 는 거리가 멀다. 오로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무를 들었을 적에 그것이 공부 에 바로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깨닫는 가장 빠른 길어요 가 장 바른 길이 참선법이요, 부처님께서 역대 조사에게 전해준 법도 바로 이 법입니다. 회두 하나 잘 들어서 나 하나 바로 깨달을 것 같으면 더할 나위 없는 무한공덕, 무한

지혜가 드러나서 현실의 삶 속에서 신심이 저절로 싹해지고, 현실을 바로 보니 욕망과 그 증애(憎愛)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되고, 지혜심성이라, 마음 편안해지고 깨끗해지 고 고요해지게 됩니다. 현실에서 자족을 못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가 아니에요. 시법 (是法)이 주법위(住法位)하야 세간상(世間相)이 상주(常住)한다.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무나니 세간상 이대(世間相)가 상주불멸이라, 세간상 이대(世間相)가 법이라.

부처님 법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에서는 서로 싸우고, 부부간에 자식간에 불 화하고, 이게 무슨 도 닦는 사람이예요. 그

### 현실에서 자비 행하자

건 바로 참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예요. 진실로 허망한 것을 느껴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을 다 하는 것, 이것이 법이라는 것이예요. 열심히 수행한 사람은 절대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다투는 일도 없고 항상 신심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지혜가 드러나서 사된 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욕심 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이예요.

심즉시불(心即是佛)이요, 마음이 곧 부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느냐. 잘 들어요. 내 말이 아니라 영명연 수(永明延壽, 904-975) 선사 <유심결(唯心訣)>에 있는 말입니다. “무한한 지혜와 모 든 공덕이 이 마음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마음공부라고 합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같이 증득한 것이 이 마음을 증득한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표 현한 것이 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 든 스님들이 찾아가는 것이 이 마음을 찾아가 는 것이요 모든 역대의 조사가 전해준 것 이 바로 이 마음을 전해준 것이로다. 천하 의 총림에, 선원의 남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참가하는 것이니 온갖 것이 이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말에 모든 것 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산산 수수, 싸우는 소리, 계승 올는 소리 모두 이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공덕과 능력이 넘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 방법을 몰라, 어려운 점이 생기면 생각이 복잡하고 혼동이 와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걱정만 생기고 그럴 때 기도를 하긴 합니 다. 이렇게 바로 인생의 모든 고뇌에서 해 탈하는 법, 이 부처님의 법 만나기가 그들 게 힘든 거예요.



### ■ 현산 스님

1943년 전남 담양에서 출생. 회암사 조실 도천 스님을 은사로 19살 (61년) 때 출가, 64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6년 전부터 회암사 선등선원장을 맡고 있는 데, 자칭한 법명으로 이름 이 높다. 노동을 통한 선 수행을 하고 있는 도천 스님의 ‘선농일체(禪農一致)’의 가르침을 받아 직접 목장감을 끼고 접 삼법살이를 돌보며 수 행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경대표를 맡고 있다.

**운문사 윤장대 유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대장전(보물 제145호) · 목각대상 및 목각대(보물 제989호) · 광무전 지장보살·입경대 · 보광명전 심존불 · 전명당 · 교지(보물 제725호) · 지운루(국립재민재보 제143호) · 영산재갈판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구산선문의 5배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동선맥을 이어 왔으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개,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천년고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세 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윤장대는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많은 중생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로우시며 영원한 부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윤재 감신년에는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에는 '중복'을 곁들여야 좋고, 수의를 만드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윤달에는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인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다녀오 모인다.”고 합니다(『동국세시기』). 특히 윤달에 생전에수제를 행하기 전에 방생과 사찰순례를 먼저 하면 불보살님의 무량한 기도가 한층 더 할 것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름있는 절들을 찾아 방생을 합니다.

용문사에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경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용문사에 오셔서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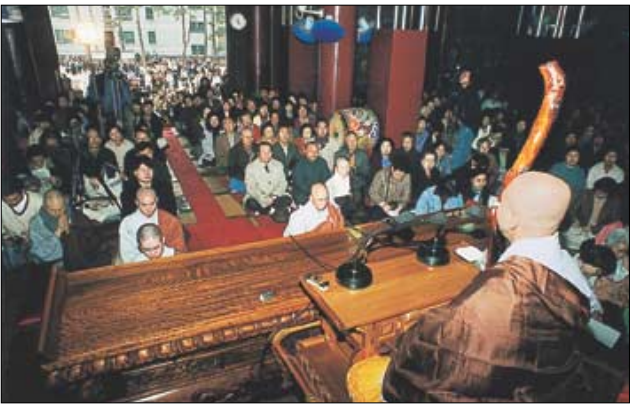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장**

**용문사 보시는 길**  
 역 소: 동서울터미널 출발(06:4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택전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영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경전로수 용문사주지 (10분 소요) (5분 소요)  
 대승사 김용사 용문사 부석사 청량사 봉경사  
 10분 소요 30분 소요 40분 소요 30분 소요 30분 소요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량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승 : (054)655-8405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3월14일-조계사 대웅전)



자비를 현실에서 행하는 것이 빨리 부처가 되는 길임을 당부하는 현산 스님.

여러분도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시간 시간을 내 마음 깨닫는 데 전력할 것 같으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바로 깨닫고 맑고 고요한 마음짜리기가 드러날 것 같으면 무엇 하고도 바랄 수 없는 큰 보배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항상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극한 마음가집을 가지고 있으면 될

참선하면 해안 생겨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두는 사람이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큰 서원을 가지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가짐,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전 중에 최고 가는 경전이 <화엄경>인데 <화엄경> 중에도 현실에서 바로 도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보현행원품'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처님은 자비심 덩어리입니다. 어떤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 당신 뜻이고 다 내 맘과 똑같이 대하셨 습니다. 그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현실에서 쓸 때에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현실의 삶 속에서 바

로 번뇌가 줄어들면서 도가 발현하는 마음 가집이 보배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미우면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게 인간이냐'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악한 중생도 다 자비심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감싸 안아서 부모가 자식 생각하듯이 감싸 안아서 간절한 자비심으로 말할 때 그 사람도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현실에서 행할 적에 내가 편해지고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밋고 독한 말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싸우고 뜯고 하면 그 사람은 공부가 잘 안됩니다. 서원을 세우고, 모든 중생을 다 내가 건져주려다. 모든 사람들, 지혜를 대신 받아서 해답해 주겠다. 그런 일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훨씬 빠릅니다.

오늘 이렇게 인연 있는 법회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한량없는 서원을 세우고 속마음으로 발원을 하면서 공부할 적에 공부가 더 빠르게 성취가 되고, 그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깃들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정리=권영진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기자가 만난 현산스님

시봉 안받고 서울 법문나들이 경전 배우고 너무 좋아 출가

"평생 걸망 지고 다녔는데 걸릴 게 뭐가 있나. 아직 힘도 있고." 법회 시작 전 잠시 만난 현산 스님에게 "시봉하는 스님도 없이 혼자 올라오셨습니까?"하고 묻자 돌아온 답이었다. 스님은 '큰 차가 좋아' 법회 하루 전날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 도봉산 밑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했다. 15-16년전 은평구 수곡사 이후 서울에서의 대중 법문은 처음이라는 스님은 "43년 3월 14일에 태어났으니까 세속적으로 지저면 오늘이 양력생일이네요"라며 봄 햇살처럼 수줍게 웃으셨다.

출가는 언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였으니까 19살 때 했죠. 한편 선생님이 대홍사 스님이었는데, <승업경> <반야심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 또 그때는 부정부패도 많고 경제도 망을 때였는데, 강패들이 시민들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 무술을 배워봤자 총 한 방이면 끝이고, 대자비대한 부처님 가르침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출가했지."

-수행담도 한 자락 들려주시지요. "경봉 스님, 동산 스님을 모시고 수행했고, 그 뒤 전강 스님 밑에서도 한 3년 공부했어. 24살 때 귀산 스님 모시고 있을 때는 조계총림 유나소임을 맡기도 했죠. 그리고... 출가하자마자 일찍부터 선방에만 다녔지, 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스님을 꼽자면... "동산 스님 열반할 때까지 모셨는데, 열반직전까지 계행이 청정하고 신심이 대단하셨어. 모시고 살아보니 제일 소탈한 분은 전강 스님이었던 것 같아. 선방에서만 오래 계셔서 그런지 구김살도 없고... 법문도 잘 해주시고,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은사신신)도현 스님은 친진 불이시고 사심이 없는 분이예요. 세속 일은 관여를 안 하시고 공부하고 일밖에 모르죠. 낮에는 율력하고 저녁에는 참선하고... 귀산 스님도 원력이 대단하신 분이였죠." 법회 끝머리에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실 거냐고 묻자 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법문에서는 그 얘기하면 안 돼"라고 말했다. "개인적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법에는 정치적 거래가 있어서는 안 돼. 잘 될 거야. 국민들이 깨어있고 다 알기 때문에."

"법문, 테이프로 들으세요"

고수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정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예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buddh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2>



분노를 안고 사는 귀신

우리는 잘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양한 이유로 화를 낸다. 자동차 운전중 들어보자. 자동차로 출퇴근 할 때 마다 화를 내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 힘겹게 비켜가야 할 때,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막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뒷차가 빨리 가라고 요란한 경적 소리를 낼 때,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신호도 보내지 않고 갑자기 앞에 끼어들 때 입에서 욕설이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온다. 사실 화를 내보았자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를 분노케 하려면 차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어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을 해칠 뿐이다. 출퇴근 할 때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나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스승으로 생각하면 분노의 불꽃은 이전과 달리 오래 가지 않는다. 나 자신은 비록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지라도 어떤 생각에 자신도 모

그만큼 아차는 더 멧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아차를 도운 셈이 된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듣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욕설을 받은 아차가 더 아름답게 되자 33천의 신들은 제석천을 찾아가 일어났던 일을 보고했다. 제석천은 곧 분노를 먹고 사는 아차를 찾아가다. 제석천은 아차에게 다가가서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손을 합장하여 존경의 예를 올렸다. 그리고 나서 제석천은 아차에게 공손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사랑하는 아야! 저는 신들의 왕인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제석천이 이렇게 공손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아차는 점점 더 흥측해 지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제석천은 이것을 지켜본 33천의 신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마음은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괴물됨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분노를 오래 머물게 하지 않는다. 분노는 결코 끈질기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나는 화가 날 때 겨뎀 욕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턱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 자신을 잘 제어한다." 상대방이 욕할 때 반사적인 욕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면 분노 사라져 잘못된 자 스스로 허물 알게 하는 것이 최선

르게 빠져 있으면 신호등을 제때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분노를 일으킨 사람에게 감사한다면 분노는 곧 사라지고 만다.

다음에 소개하는 경전도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상윳타 니카야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붓다가 사위성에 머무실 때 분노와 관련하여 말씀한 것이다. "옛날에 흥측하게 생긴 아차가 신들의 왕인 제석천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것을 본 33천의 신들은 이 아차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였다.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못생긴 아차가 천신들의 왕인 제석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33천의 신들이 아차를 상대로 욕을 하면 할수록 아차는 점점 더 멧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아차는 대체로 경전에서 살생을 일삼는 사악한 귀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제석천은 불법을 믿고 선행을 하며 거대한 힘을 가진 신이다. 사악한 아차가 33천의 신들이 모시고 있는 제석천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신들이 아차를 욕한 것이다. 그런데 거친 말을 하면 할 수록

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석천은 마음을 잘 단속하고 있는 사람엔 분노는 일어날 기회를 찾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제석천이 분노에 대응하는 방식은 보통 우리가 하는 것과 판이하다. 자신을 무시하거나 욕하는 자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응하는 것이 진정으로 분노를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알고 사죄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 욕박지르기 나 맞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분노가 일어나면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도 새겨들어야 하겠다. 사람이 어울려 살다보면 화가 나지 않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일어난 화를 붙잡아두면 화병에 걸리고 자신을 해치게 되고 만다. 붓다는 화와 관련하여 세 종류의 사람을 들고 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돌에 분노를 세기는 사람이고 둘째는 분노를 모래에 세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분노를 물에 세기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분노를 물에 세긴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하겠다.

동국대 불교학과(경주)

‘묻고 답하기’ 현장
- '능엄주'를 열심히 암송하는 모습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서울 스님께서 열반하신 후 '능엄주' 구절 사이로 스님의 모습이 보이는 등 도무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길을 알려주세요.
- "형상적으로 스승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맑고 깨끗한 분마음을 드러내 내 안의 선지식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보살님의 경우 영이 혼이 되어서

빙의 현상 나타나면 무심히 공부하세요
들어있습니다. 빙의 현상입니다. '능엄주'를 하는 사람 가운데 보살님과 같이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흥기는 좋은데 현실에 끄달리다 보니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속세의 탐하는 마음도 작을 것이지요. 그저 열심히 참회하면서 보시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분마음이 유지되도록 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동굴,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떡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8일
중구불교 4대 명산 순례
미안마 성지순례 6일(미안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슬러랑키 성지순례 6일
터벳 성지순례 11일
수미산 순례 24일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견전지용 초. 행사초롱 및 손잡이대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장품)
불제대원기업
귀일문의 (031)986-0277-8
귀일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귀일문의 (032)582-6235-6
http://www.bulje.co.kr